

인기 폭발 '여수 낭만버스' 5월부터 달린다

평균 탑승률 98% 달해
도심 돌면서 공연 즐겨
올해 3개월 앞당겨 운행
시, 관광 활성화 사례 발표도

버스로 여수 도심을 돌면서 공연을 즐기는 '낭만버스-시간을 달리는 버스'가 올해는 5월부터 3개월 앞당겨 운행한다. 평균 탑승률이 98%에 달하는 등 여행객들 사이에서 반드시 경험해보아야 할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면서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시티투어 '여수낭만버스-시간을 달리는 버스'를 오는 5월부터 운영을 시작, 10월까지 5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낭만버스는 시티투어에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토·공휴일에 39차례에 걸쳐 운영됐다.

이 기간 탑승객은 1535명으로, 평균 탑승률은 98%에 달했다.

버스를 타고 이순신광장을 출발, 소호동동다리~돌산대교~거북선대교~종포



지난해 여수를 찾은 한 여행객이 낭만버스에 올라 돌산대교를 배경으로 여수 밤바다 야경을 만끽하고 있다.

해양공원 등을 돌아보는 동안 노래와 함께 뮤지컬 형식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관광과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여행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낭만버스 등의 관광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은

1508만5000명에 달했다.

여수시는 최근 총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린 '2018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에서 시티투어 '여수낭만버스-시간을 달리는 버스'를 관광활성화 운영사례로 발표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버스 탑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클린 지킴이'

27개 읍면동 2명씩 54명 다음달부터 활동

여수지역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단속하는 전담 인력들이 활동에 들어간다. 이른바 '클린 지킴이'들이 CCTV 사각지대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여수시는 다음달 1일부터 27개 읍·면·동에 2명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54명을 배치,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12월 31일까지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하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관리를 비롯,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단속,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종량제 봉투 사용 지도 등을 맡는다. 여수시는 관련 예산으로 2억8200

만원을 확보, 투입키로 했다. 감시원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18세 이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감시원 배치로 불법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25개 읍·면·동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1대씩 배치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을 통해 감시 활동뿐 아니라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하는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고흥 여객선 이용객 19% 증가

지난해 229만명...금오도 86만명으로 최다

전남 동부지역의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여수 및 고흥지역에서 229만명이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방문했다. 이는 2016년 여객선 이용객 192만명보다 19% 증가한 수치다. 주요 도서별로는 비렁길로 유명한 여수시 남면 금오도가 8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32만명, 하화도 26만명, 거문도 20만명 순으로 이용했다. 전남동부지역 여객선 이용객은 2014년 177만명에서 2015년 206만명, 2016년 192만명, 2017년 229만명 등 해마다

증가했으며, 작년 229만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여수해수청은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로 여객선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고 여수밤바다 야경 관광을 위한 야간 운항 허용, 여객선터미널 편의시설 개선 등 편의성 향상이 여객선 이용객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규규열 여수해양수산청 선원회사안 전교장은 "전남동부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선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객들도 비상연락처 제공 등 여객선 안전관리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박람회장에 청소년해양교육원·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청소년해양교육원 상반기 착공
해양기상과학관 용역비 1억 확보
정부 차원 지원 등 활성화 기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는 등 박람회장 활성화에 정진호가 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해 "박람회장은 시설 매각이나 처분보다 박람회 유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지원도 기대된다.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박람회장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해양교육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 박람회장 내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할 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시설이다. 해상 자연재해는 물론 육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과 교육장을 갖춘다.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5400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m². 총 사업비는 167억원으로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 예정이다. 227억원 규모의 국립해양기상과학관도 박람회장에 들어선다. 해양기상과학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 관측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박람회장에 건

립 시 전남·경남을 아우르는 자연재해 체험의 장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용역비로 1억원을 확보한 여수시는 지속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박람회재단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해양아카데미, 박람회 종사자 홈커밍데이, 대규모 MICE 행사, 여수국제아카데미, 여수국제해양포럼 개최 등 박람회장 관광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2020년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테크니션 스쿨' 오늘 개강

9개월간 취업 맞춤형 교육

여수시 테크니션 스쿨이 16일 개강한다. 테크니션 스쿨은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료생 277명 중 256명이 주요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맞춤형 교육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대상자 선정에도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일간 45명 모집에 438이 몰려 9.7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테크니션 스쿨(9기) 운영일정은 이달부터 9개월간으로, 진남경기장 내 평생학습관에서 인성, 전문기술, 영어 등 취업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개강식은 16일 오전 평생학습관 2층 테크니션 스쿨 강의실에서 열린다. 여수시 관계자는 "테크니션 스쿨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 젊은층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